

우주산업 클러스터 단지 조성 본격화

도, 어제 하원테크노캠퍼스 내 한화우주센터 기공식 1만여㎡ 규모 위성개발·제조시설로 2025년 말 완공 고용 창출·세수 확보 등 경제적 가치 창출 효과 기대

민선8기 제주도정이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우주산업을 역점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우주산업 클러스터 단지 조성사업이 본격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한화시스템은 29일 옛 탐라대학교 부지에서 '제주한화우주센터'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오영훈 지사, 여성철 한화시스템 대표이사, 김대진 제주도의회 부의장, 김광수 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제주한화우주센터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일환으로 조성되는 것으로 연면적 1만1443㎡(약 3460평)에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위성개발·제조시설로 오는 2025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한화우주센터는 다년간 축적된 우주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생산공정을 최적화해 위성을 월 4기에서 최대 8기까지 생산할 수 있다. 우주환경에서 위성 운용성을 검증하는 '열진공' 시험과 근거리에서 위성 안테나 성능을 시험하는 '근접전계' 시험 장비 등을 이종으로 설치해 생산 단계별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시켰다. 향후 자동화 제작·조립 설비를 추가 구축해 생산

능력을 증가시킬 계획이다.

특히 한화시스템은 ▷고해상도 위성 이미지 분석을 통한 토지·수자원·산림 자원의 식생상태 분석과 환경 모니터링 ▷재난·재해 감시 및 안보 분야 활용 ▷지리정보시스템(GIS) 설계를 위한 데이터 분석 ▷자율주행·스마트시티 구축에 필요한 위치기반서비스(LBS) 등 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위성 서비스 산업 활성화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수년간 방치되던 옛 탐라대학교 부지를 활용해 하원테크노캠퍼스를 조성하고 있다.

도는 한화시스템 연관기업 9개사와 함께 복수의 기업들이 하원테크노캠퍼스 등 제주 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연관기업들의 추가 입주에 따른 직접화 및 산업성장, 고용 창출, 인재 양성, 세수 확보 등의 파급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한화우주센터 기공식은 제주도정이 힘써온 민간 우주산업 육성의 이정표"라며 "하원테크노캠퍼스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민간우주산업 혁신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주를 우주를 향한 담대한 도전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성철 한화시스템 대표이사는 "제주한화우주센터는 위성 개발·제조 산실로서 혁신적인 기술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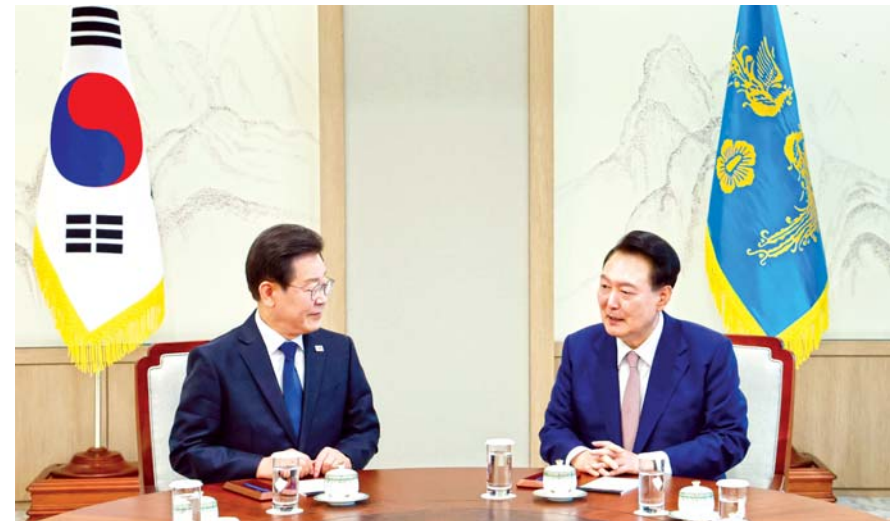
한편 제주도는 제주한화우주센터 기공식을 기점으로 도내의 우주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민간우주산업 최적지 제주'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제주도와 한화시스템이 29일 서귀포시 하원테크노캠퍼스 내에서 제주한화우주센터 건립 기공식을 가졌다.

이상국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영수회담을 하고 있다. 이날 만남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성사된 첫 영수회담이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이재명 대표 첫 영수회담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등 민생현안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첫 영수회담을 갖고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등 민생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가진 이날 첫 영수회담은 윤 대통령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이 대표는 이날 본격 회담에 앞서 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을 비롯해 여러 현안에 대해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민간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 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생 회복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크다"면서 꼭 수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또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과 관련해서는 국회 공론화 특위에서 여야와 의로계가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특별법 등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통령의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도 제안했다.

이 대표의 발언 이후 공식 회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도윤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민생회복 지원금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급 상황에 따라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이번 회담의 의미에 대해서는 "야당과의 협조·협치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민생문제와 국정현안을 논의했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담 후 브리핑을 통해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어 보였다"며 회담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총평을 내놨다. 다만,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 서로 공감했고 앞으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부미현기자

경영년 겪는 제주대병원 '비상경영체제' 전환... 5년

2024년 농지대장 10만여건 일제정비

도, 연말까지 8683ha 조사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2월 말까지 '2024년 농지대장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2022년 4월 15일 농지원부 제도

개선에 따라 당초 세대별 1000㎡ 이상 경작·재배 시 작성해 온 농지 원부는 필지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농지대장으로 개편됐다.

도는 농지원부에 미등재된 농지 1000㎡ 미만에 대해 단계적 조사를

실시해 전체 농지에 대한 농지대장 작성이 이뤄지고 관리되도록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2022년에는 6만 2679건 1만3502ha를 정비했으며 2023년에는 8만8207건의 1만3747ha에 대한 정비를 진행했다.

이번 농지대장 일제정비 조사물량은 10만8306건, 8683ha이다. 정비 대상은 구 농지원부 미등재 농지,

국공유지 농지대장 미작성 농지, 2022~2023년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일제정비 잔여 및 오정비 불량 등으로 농지의 소유 및 이용현황을 확인하고 정비한다.

주요 정비 내용은 농지 소유권 변동, 시설물 및 태양광 설치 여부, 농지 임대차, 이용현황 및 경작현황 등이다.

김도영기자

빛나는 제주의 도약
2025 APEC 제주개최!

THE 11TH INTERNATIONAL eMOBILITY EXPO

제11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

2024년 4월 30일(화) - 5월 3일(금)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최: 국제e-모빌리티엑스포·세계EV협의회 | 주관: 제11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 조직위원회

글로벌 메이저 전기차·전기선박 시승과 전시
-현대차·테슬라·벤츠·폴스타·KG모빌리티·우진산전

제3회 대학생 EV 자율주행 경진대회
제1회 전국 EV 자율비행제어 경진대회
제1회 전국 시 코딩 드론 경진대회

글로벌 친환경 e-모빌리티와 에너지산업 대전환 플랫폼 www.ievexpo.org